

Perfect! VOL.01

DREAM 부천대학교

2012. 09 + 10

PERFECT WAY
2013학년도
입시 제도 핵심 포인트!

CAREER DEVELOPMENT
취업정보센터 2012년 하반기 사업들

CAMPUS INSIDE
환경 개선 사업으로 확 달라진 캠퍼스



사람다운 사람 — 부천대학교



| 12



| 14



| 16



| 18

| 22

| 24

2012 교과부 발표 취업률 경기·인천 지역 가 그룹 위

부천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2 취업률 조사에서 전문대학 '가' 그룹(졸업자 2,000명 이상)의 취업률 경기·인천 지역 1위, 전국 5위(66.4%)를 차지했다. 체계적인 교과 과정과 산학 협력을 통한 철저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실무 감각을 높이는 대학, 부천대학교는 이로써 경기·인천 지역 최고의 전문가 양성 집단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순위	학교명	취업률(%)	진학률(%)
1	영진전문대학	79.3	2.5
2	동양미래대학	68.8	3.9
3	대전보건대학	67.9	4.5
4	부산과학기술대학	67.1	5.1
5	부천대학교	66.4	4.7
6	경남정보대학	66.0	3.8
7	대림대학	65.9	4.4
8	영남이공대학	63.6	4.8
9	충청대학	63.5	1.7
10	인하공업전문대학	63.4	1.7

CELEBRATION

- 04 사람다운 사람
- 05 축하 메시지
- 06 축하 메시지

한방교 총장 인사말
김만수 부천시장
설훈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김경협 국회의원
원혜영 국회의원

VISION UP

- 10 PERFECT WAY
- 12 PERFECT DAY

2013학년도 입시 제도 핵심 포인트!
현판식 돌아보기

DREAM UP

- 14 PERFECT HARMONY 1
- 16 PERFECT HARMONY 2
- 18 PERFECT VALUE
- 22 PERFECT CHALLENGE
- 24 PERFECT START

김지희 생활스포츠과 교수
이종필 호텔외식조리과 교수
간호과, 의료 산업의 미래를 위한 간호 전문가의 요람
탄자니아 해외봉사 활동을 가다
우리투자증권 본부장 보좌역 이다예 동문

JUMP UP

- 26 HIGHLIGHT
- 28 CAREER DEVELOPMENT
- 30 CAMPUS INSIDE

하와이 해외연수 프로그램
취업정보센터 2012년 하반기 사업들
환경 개선 사업으로 활 달린 캠퍼스

NEWS

- 32 NEWS
- 34 신입생 입시 요강

모두가 입학하고 싶은 최고의 직업교육 중심 대학을 꿈꾼다



10월, 어느덧 시간은 가을을 관통하는 길목에 와 있습니다. 결코 그치지 않을 것만 같던 지난 여름의 지루한 우기가 지나 이제는 높고 푸른 하늘 아래 서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시간은 정직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을 빛나게 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천대학교는 올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고등교육기관 취업현황에서 취업률 66.4%로 경기·인천 지역 졸업생 취업률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취업률은 기업이 원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학교의 교육 철학과 취업 지원 실무에서의 헌신적인 서비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야심찬 취업 지원 사업들을 통해 최고의 취업률을 넘는 성과 달성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입학하고 싶은 최고의 직업교육 중심 대학"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부천대학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가 육성이라는 목표에 걸맞게 교육 인프라 확충에도 많은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오픈 스튜디오 룸과 운동장 등의 조성과 리모델링을 완료했으며, 이에 앞서 올해 처음 개설한 간호과의 경우 국내에서 보기 힘든 최적의 다양한 실습실을 갖춰 8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부천대학교는 올해 말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일원에 186,646㎡ 규모의 제2캠퍼스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최첨단 스마트, 친환경, 지역연계라는 3대 목표 아래 건설될 제2캠퍼스는 향후 산학 협력을 위한 연수 시설, 해외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갖춘 친환경 캠퍼스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천시민들의 자량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부천대학교가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보다 질 높은 직업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에 필요한 전문성을 철저히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결국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 인생의 후반기가 늘어나는 현 시대에는 자신만의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만이 오래도록 원하는 직업을 영위하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천대학교의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눈부신 발전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뉴스레터를 창간합니다. 앞으로 뉴스레터를 통해 부천대학교의 위상과 가치가 더 멀리 그리고 더 넓게 전파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뉴스레터가 학교와 학생, 임직원,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열린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뉴스레터 창간을 위해 노력한 많은 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부천대학교 총장 한방교



부천대학교의 뉴스레터 창간을 축하합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행복한 계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절과 함께 기쁜 소식을 한 가지 더 들었습니다. 부천대학교의 훌륭한 목소리가 되어줄 뉴스레터 창간이 그러합니다. 부천대학교의 새로운 뉴스레터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공동체의 발전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소통'입니다. 부천대학교 역시 모든 부천인들이 함께 소통하며 성장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아니 이전보다 몇 배나 성장하고 발전하는 부천대학교의 이야기를 들려줄 뉴스레터를 기대합니다. 부천대학교의 전통과 눈부신 발전의 이야기에서부터, 학생들의 성장하는 모습, 부천대학교의 잊지 못할 순간들, 그리고 '부천'이라는 한 지역 이웃들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뉴스레터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뉴스레터가 부천대학교 학생과 임직원 전체의 참여 속에 만들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내용들이 모이고 모여 훗날 되돌아보며 웃을 수 있는 부천대학교의 큰 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뉴스레터 창간을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수 부천시장



“퍼펙트 드림”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설훈입니다.

어느덧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부천대학교의 소식을 전해줄 <퍼펙트 드림>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78년 학교법인 <한길학원>이 설립된 이래로 부천대학교는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대학문화를 형성하고,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대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 일다운 일을 하는 사람, 기술자다운 기술자가 되라”고 가르치신 설립자 몽당(夢堂) 한항길 선생의 설립 정신을 계승해 전인 교육의 도장으로, 부천의 자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대학교는 산업체 위탁교육 전문기관으로서, 협력기관과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제는 부천의 자량이자 부천의 상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소식지 <퍼펙트 드림>의 창간은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교내외에 알리고 공유하며, 부천대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애써주신 발행인 및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를 치하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천시 원미구를 **설훈 국회의원**



부천대학교의 가치를 전달하는 뉴스레터를 기대하며...



안녕하세요. 부천시 소사구 국회의원 김상희입니다.

부천대학교 소식지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부천대학교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한방교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 교직원 여러분과 부천대학교를 아껴주시는 학부모, 재학생 여러분께도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부천대학교는 부천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인재 육성에 앞장서며 지역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특히 5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해 사회 발전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역사 속 한 장면을 장식할 뉴스레터 창간을 통해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대학 교육의 위기라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경쟁 위주의 사회는 젊은 대학생들을 스펙 위주의 교육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부천대학교와 같이 창의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천대학교의 교훈인 “창의적인 기술인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를 통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습득한다고 해서 우수한 인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될 때 참된 지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부천대학교 학생들과 동문 여러분들은 훌륭한 여건에서 공부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지금껏 배운 것들을 어떻게 펼쳐나갈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 이번 뉴스레터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부천대학교의 가치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천대학교 뉴스레터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부천대학교와 함께하는 구성원들 모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부천시 소사구 **김상희 국회의원**





소통을 통한 더 큰 발전을 기대합니다

부천대학교의 뉴스레터 창간을 축하합니다.

가을이 무르익고 있는 요즘,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어 기쁜 마음이 앞섭니다. 부천대학교의 뉴스레터 창간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부천대학교의 끊임없는 노력과 발전의 이야기를 들려줄 뉴스레터를 기대해봅니다.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듣고 교류한다는 것은 조직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진리 탐구와 학문, 교양들을 쌓기 위해서 이러한 매개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의 창간을 통해 부천대학교 학생 간의 교류는 물론이며 발전하는 부천대학교의 소식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천대학교의 희망과 꿈이 뉴스레터에 담겨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이 창간되는 매체를 통해 부천대학교의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천 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을 기원하며, 저 역시 부천의 발전은 물론 부천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 원미구갑 김경협 국회의원

창의, 인성, 직업 교육을 알리는 장을 열며...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부천대학교 뉴스레터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 교육을 위해 애써주시는 한방교 총장님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배움의 열정을 쏟으며 학문 수행을 위해 전진하는 재학생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격려 인사를 전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전문가 육성을 위해 노력해온 부천대학교의 뉴스레터 창간은 부천대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창의, 인성, 직업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인프라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큼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부천대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 및 주변 지역의 문화정보 제공으로 대학과 지역사회 관심과 호감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국가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된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창의력과 가치관, 유연성과 다양성, 국제적인 감각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천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뛰어넘어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와 창의적인 지식을 만들어 내는 노력을 경주한다면 부천을 넘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당연히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뉴스레터 창간을 축하드리며, 몽당(蒙堂) 한향길 선생님의 설립 이념을 따라 부천대학교가 더욱 우뚝 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 오정구 원혜영 국회의원



새로운 미래를

부천대에서 준비하는 방법

2013학년도 입시제도 핵심 포인트!

체계적이고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경기·인천 지역 취업률 1위를 자랑하는 부천대학교의 2013학년도 입시 제도가 확정되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가는 부천대학교에서 더 큰 미래를 이룰 수 있는 방법, 2013년도 입시제도를 요약·정리했다.

학과 신설과 면접 전형 확대

2년제 전문 학사 과정의 입시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학과의 신설과 면접 전형의 확대에 있다.

먼저 부천대학교에서는 항공 및 관련 서비스 분야 전반에서 폭넓게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과 서비스 마인드를 가진 전문 서비스 인재 양성을 목표로 80명 정원의 항공서비스과를 신설해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 등 총 3회에 걸쳐 모집한다. 또한 면접 전형을 확대해 보다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했다. 고등학교 때 이미 해당 분야에 재능을 발휘한 학생들을 발굴해 시험 없이 오직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면접 전형의 경우 이미 지난 2012학년도에 2D&영상그래픽전공과 3D영상그래픽전공에서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이를 더욱 확대해 두 학과 이외에 주얼리디자인전공, 실용사진전공, 호텔외식조리과 등에서 추가로 면접 전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항공서비스과와 사회복지과는 지원한 학생 전체에 면접을 실시해 전체 전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응시생은 면접에 불참할 경우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된다. 특히 항공서비스과에서는 면접에서 외국어 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외의 변화로는 기존에는 분리되어 있던 모바일통신과와 정보통신과를 정보통신과 1개과로 통합하며, 미술과의 경우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정원을 증원하였다.

4년제 학사 학위 과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란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 직업 실무와 연계된 직업 심화 교육을 제공해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 과정의 졸업자와 수료자가 1~2년간 3~4학년의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할 경우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부천대학교에서는 총 21개 학과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입학문의 032-610-0710, 0591~7

산업체 위탁생 전문학사 과정

산업체 위탁생 전문학사 과정은 고등학교 졸업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근무 중인 사람들을 위한 과정으로, 수능 없이 입학해 정규 과정과 동등한 자격을 획득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게 되는 것은 물론, 3~4학년 학사학위 과정에 입학이 가능하고, 졸업 후에 4년제 대학에 편입할 수도 있다. 또한 부천대학교 정규 규정에 의한 각종 장학금의 수혜 혜택도 제공받게 된다.

특히 부천대학교 산업체 위탁과정의 경우 인가받은 인원이 총 9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더불어 실제로 선발해 운영하는 규모도 전국 최고를 자랑한다. 그만큼 교과 과정이 충실하고 교수진도 우수하다는 증거다. 산학 협력 체계 또한 큰 몫을 차지하는데, 아웃백 스테이크, 유베이스, CJ 등 대형 기업들과의 협약 체계를 통해 많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취업 후 다음해에 산업체 위탁생으로 입학하고 있다.

산업체 위탁은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장에 9개월 이상 다니고 근무중인 자는 수능 없이 입학할 수 있다. 부천대학교 산업체 위탁생 모집 전형은 홈페이지(www.bc.ac.kr)를 통해 입학 원서를 다운로드받아, 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 졸업증명서, 재직증명 관련 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입학문의 032-610-0591~7

신설학과		
학과명	모집 시기	비고
항공서비스과(80명)	수시 1차 / 수시 2차 / 정시	면접 실시

변경된 입시 제도			
구분	2013학년도(올해)	2012학년도(지난해)	비고
수시전형 원서접수 지원회수	전문대학 : 제한 없음 일반대학(4년) : 6회로 제한		근거 : 2013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타 대학(4년, 전문) 미등록자만 총원	2013.3.1~2013.3.4	2013.2.29.~2012.3.3	
수시 총원 대상자 정시 지원 불가	수시 예비 후보자에서 총원 대상자 되면 정시 지원 불가(본인 이 포기한 경우에도 지원 불가) → 일반(4년제), 전문대학 지원 불가	예비 후보자에서 총원 대상자가 되어 본인이 포기(불합격 처리)할 경우 정시 지원 가능	



현판식
돌아보기

부천대학교의 빛나는 이름을 걸다

지난 8월 14일 오전 9시, 부천대학교 정문에서 전체 교직원과 학생 대표가 모인 가운데 “부천대학교” 현판식이 열렸다. 부천대학교는 지난해 11월 부천대학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특히 8월 15일 광복절 기념일과 동시에 설립자 몽당 한항길 선생의 탄생 1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행사를 갖게 된 것이다. 부천대학교의 빛나는 이름을 건 현장을 소개한다.

부천대학교 현판식은 한방교 총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교직원과 학생 대표가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먼저 한방교 총장과 학생 대표, 그리고 주요 교직원들은 행사에 앞서 부천대학교의 상징인 보은의 종 타종식을 가졌다. 밀레니엄관 준공과 함께 설치한 보은의 종은 국화인 무궁화를 문양으로, 설립자인 몽당 한항길 선생의 유훈과 건학정신을 새긴 종이다. 총 세 번에 걸친 타종 이후 한방교 총장은 보은의 종에 새겨진 문구들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며, “얼마 전 올림픽 축구 3·4위전이 열린 곳이 밀레니엄 스타디움이었는데, 1999년에 착공해 2003년에 완공한 우리의 밀레니엄관과 보은의 종의 정기를 받아 승리할 것이라 확신했다.”며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타종을 마친 행사 참석자들은 학교 정문으로 자리를 옮겨 설립자 몽당 한항길 선생의 독립선언서 육성 녹음을 청취하였고, 다음으로는 교명 변경에 대한 경과보고가 진행되었다.

부천대학교는 작은 씨앗에서 자란 큰 나무

부천대학교는 1957년 설립자 몽당 한항길 선생이 기술교육을 위해 학교설립 허가원을 제출하고 이듬해 소사공과기술학교를 개교한 것에 뿌리에 두고 성장했

다. 이후 1978년 학교 법인 한길학원을 설립해 1979년 부천공업전문대학을 개교하였으며, 1990년 부천전문대학으로, 1998년 부천대학으로 각각 교명을 변경했다. 이후 2007년 4년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인가받은 바 있으며, 지난 해 11월 부천대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어진 기념사에서 한방교 총장은 “오늘 우리는 지난 54년 동안 한길학원의 역사와 빛나는 성취를 되돌아보며 다가올 백년, 천년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하는 자리를 새롭게 가다듬고자 한다.”며, “우리 대학은 고등교육법의 변경을 통해서 ‘학위 수여’, ‘대학교’ 명칭 사용, 수업 연한의 다양화 등 고등직업 교육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몽당 선생이 뿌린 작은 씨앗이 현재 부천대학교라는 큰 나무가 되었다면 이제부터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우리 모두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구성원들과 다짐했다.

설립자 몽당 한항길 선생 탄생 115주년 기념 부천대학교 현판식은 이후 많은 이들의 박수 속에 현판 제막을 끝으로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행사에 참가한 교직원들은 앞으로 모든 구성원이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과 지혜를 모아 사람다운 사람, 미래가 요구하는 전문 기술인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리듬 체조,
생활 체육으로
널리 전파되기를...

김지희

국가대표 리듬체조 코치 겸 생활스포츠과 교수

지난 런던올림픽 최고의 스타는 역시 리듬체조의 손연재 선수였다.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예선과 결선. 손연재의 곁에는 우리 부천대학교에 매우 낯익은 얼굴이 종종 등장했다. 바로 생활스포츠과의 김지희 교수이다. 국가대표 리듬체조 코치를 겸하며 부천대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김지희 교수를 만나보았다.

국가대표 리듬체조 코치와 부천대학교 교수로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 지도자의 길을 병행하고 있는 김지희 교수의 일과는 여간 바쁜 게 아니다. 이번 학기에도 월요일과 수요일 학교 강의를 책임지면서 나머지 시간은 국가대표 훈련을 위해 태릉선수촌에서 보낸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터. 하지만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이며 바쁜 나날을 보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리듬체조를 널리 전파하고 싶은 간절한 염원 때문이다.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몸매의 균형 있는 발달과 건강을 위해 거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리듬체조를 시키는 것과 달리 우리는 여전히 비인기 스포츠일 뿐입니다. 리듬체조가 널리 전파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좋은 성적을 내는 훌륭한 선수가 나와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훌륭한 생활 체육 지도자들을 길러 저변을 확대해야 합니다. 따라서 능력이 주어지는 한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을 병행하고 싶습니다.”

손연재 VS. 부천대학교 학생들

선수들을 코치하는 일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 코치를 할 때는 나라를 대표하는 완벽하고 강하고 정교한 선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고 철저할 수밖에 없다. 반면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생활 체육 지도자의 소양과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기에 많은 의사소통을 하면서 보다 대중적이고 즐거운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 수업은 음악부터 보다 친근한 것을 선택하고, 동작도 어려운 기술보다는 쉽고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즐거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자신감을 얻어서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이 들도록 연구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스포츠 스타 손연재의 코치라는 것에 대해 학생들의 호기심도 매우 큰 편이다. 새로운 동작을 가르칠 때면 학생들은 “손연재도 이 동작 하나요?” 하고 묻는다. 예쁜지, 성격은 어떤지 등 가십거리를 묻는 학생들도 많다.

“항상 마음으로 다가가는 교수가 되는 것이 저의 바람인데, 늘 선수들과 생활해서 그런지 수업 시간에 종종 무서운 표정이 나온다고 학생들이 그러더군요. 아직은 교육자의 면모와 지도자로서의 카리스마가 양립하는 것 같아요.”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했던 런던 올림픽

국가대표 코치로서 선수단의 당사자이기도 했던 김지희 교수는 이번 런던올림픽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했다. 김 교수는 기대한 만큼의 성적이 나왔지만 아쉬움도 컸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8위 안에 들어 결선에 나서는 것이 목표였지만,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준비도 잘 되었고 연재의 기량도 많이 늘어서 기대를 조금 높이 잡았습니다. 결선만 나가면 충분히 동메달도 노릴 수 있다고 전망을 한 것이죠. 실제로 0.225점 차이로 4위에 머물렀는데, 곤봉 두 개 가운데 하나만 잡았어도 +0.4점으로 메달 획득이 가능했지요.”

비록 아쉬움이 남긴 했지만 런던 올림픽은 무엇보다 한국 리듬체조의 가능성을 증명한 대회였다. 다시 대표팀 훈련에 돌입한 김지희 교수는 다가오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개인 금메달, 팀 동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수든 학생이든 마음을 다해 열정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제가 기대한 만큼, 아니 그 이상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소홀하거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학생들이 금세 알아차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늘 열과 성을 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김지희 교수는 “우리 학생들도 항상 자신감 있게 자기 분야에서 역할을 다하고, 더불어 우리 부천대학교의 이념인 사람다운 사람처럼 인격적인 면도 갖춘 사회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경험을
값지게 하는 멘토

이종필 호텔외식조리과 교수

지난 4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2 대한민국 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 부천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최고의 영예인 대회장상을 비롯해 최우수상, 금상, 은상 등 참가 조 전원이 이룬 눈부신 성과 뒤에는 이종필 교수의 따뜻하고 애정 넘치는 격려와 조언이 있었다.



2012 대한민국 국제요리경연대회는 국제 기준에 따라 열리는 국내 최고 규모의 요리 경연 대회이다. 지난해에 문을 연 호텔외식조리과는 지난해 1개 조가 참가했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5개 조 총 14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그 결과 대회장상(2학년 박소영, 박아름, 양정희, 김현경, 황진주)과 최우수상(2학년 윤인표, 윤현표, 박서영, 이민재, 김하나), 금상 2개(2학년 김은비, 조아라 / 1학년 이하빈), 은상(1학년 김한솔) 등 참가 조 전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와 같은 눈부신 성적은 학생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물에 다름 아니다. 학생들은 한 달 전부터 책과 인터넷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대회 출전을 위한 메뉴 개발에 힘썼다. 매일 새로운 요리를 만들었다가 제외시키기를 반복한 것이 어느덧 한 달, 학생들은 마침내 최고의 요리들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 곁에는 이들을 항상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준 이가 있었다. 호텔외식조리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이종필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도와주는 대신 밤 쉼 때 같이 있어주고 라면만 사주었다."고 겸양하는 그는, 학생들에게 그 누구보다 든든한 최고의 조력자 역할을 해주었다. 어쩌면 이번 대회의 빛나는 성과는 학생들과 이종필 교수의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답을 얻는 것보다 과정이 더욱 중요한 이유

이종필 교수는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구하기를 바란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답을 쉽게 던져주는 것과 스스로 깨내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로 기억되기 때문이다. 물론 무작정 뒷짐만 지고 있었을 리는 없다. 학생들이 완성한 요리에 대해 정확히 평가해 주고 모자란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한 학생이 15일 동안 재료비도 엄청 많이 들고 고생을 해서 요리를 보여 주었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잠깐 동안 변화를 주어서 완성도를 높여 주니까, 교수님 보름 동안 고민했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15일 동안의 시행착오 기간이 없었다면 과연 저의 조언이 학생의 것이 되었을까요? 그간의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이해도 쉽고 해결 능력도 생기고 만족감도 극대화되는 것이죠. 이제 그 해답은 뱃속에까지 녹아 들어 있을 겁니다."

학생들은 이종필 교수의 의도를 잘 헤아려 주었다고 한다. 스스로 컨셉을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떤 조의 경우 한 달을 준비하는 동안 29일째 되는 날까지 메뉴가 바뀌기도 했다. 그 모든 순간이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이었고, 그 과정을 거치며 학생들 모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



대학은 미완성의 인재를 배출하는 곳

호텔외식조리과 학생들은 이종필 교수에 대해 학생들의 눈높이를 아는 교수라고 평한다. 학생들이 어떤 것을 궁금해 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지, 학생들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주는 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인성 좋고 친절한 품성으로 다른 과 학생 사이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종필 교수는 "교수는 한가하고 학생들은 엄청나게 바쁜 과를 만들고 싶다."고 밝힌다. 물론 교수들도 교수법과 학생 능력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결국 공부는 학생 스스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이종필 교수는 "대학은 학생을 50%의 미완성으로 졸업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역시 나머지 50%는 학생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학교에서 가득 채워 배출하는 것은 학생들의 가치를 정형화시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와 테레사 수녀가 가치가 다르듯, 학생들도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가치에 맞게 나아가야죠. 저는 학생들이 그러한 가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지난 대한민국 국제요리경연대회는 학생들이 요리의 가치를 깨닫는 소중한 과정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학생들이 뼈에 사무치는 소중한 경험 끝에 수상의 감동을 누린 순간, 이종필 교수의 기쁨 또한 두 배가 되었다.

간호과

의료 산업의
미래를 위한
간호 전문가의 요람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젊음의 특권이다. 여기에 탄탄한
실력이 뒷받침된다면 어떠한
도전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연과학계열 간호과가 바로
그 실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곳이다. 자연의 법칙을 인간이
풀어내는 스페셜리스트들을
양성하는 곳, 간호과를 만난다.



department of nursing



76과 83. 이 숫자는 우리나라 남녀 평균 예상 수명이다. 단순히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든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즉 삶의 질이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다.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자연
스러운 결과다. 간호과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다. 2012년 3월 첫 입학생을
맞이하면서 학과를 첫 문을 열어 부천 의료 사회에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내 미래를 향한 확실한 투자

대학에서 전공은 인생의 방향을 움직이는 큰 축이다. 전공으로 인생의 방향이 달
라지기 때문. 따라서 전공을 정한다는 것은 대학을 결정하는 것보다 더 신중을 신
중을 더해야 한다. 간호과는 최근 '취업전쟁' 속에도 남다른 경쟁력으로 자신의
진로와 전공을 결정해야 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학과다.
하지만 '순백의 천사' '나이팅게일' 등 지금까지도 간호과라고 하면 여자의 영역
이라고 생각하기 쉬웠다. 그러나 조금 더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부천대학교 간호
과도 2012년 1학년 정원인 20명 중 5명이 남학생일 정도로 남학생의 지원이 두드
러진다. 사회에서도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간호 영역에서 남성의 필요성이 요구
되고 있다. 즉, 여성과 남성의 성별이 아닌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더 중요시되는
것이 바로 미래 간호과의 모습이다.

간호과를 졸업한 후 단지 간호사로서의 미래만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졸업 후 의
료 현장의 최전방에서 일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진로가 간호과 졸
업생에게 펼쳐져 자신의 흥미에 맞춰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건 관
련 공무원, 보건진료원, 보건 관련 직종 경력자 및 교사 등 간호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 부천대학교 간호과에서도 다양
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다.

간호 전문가의 꿈
부천대학교 간호과가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기본간호학 이론 및 실습, 간호 사회학, 성
인간호학이론 및 실습, 여성간호학이론 및
실습, 아동간호학이론 및 실습, 지역사회간
호학이론 및 실습, 정신간호학이론 및 실
습, 여성간호학이론 및 실습, 간호관리학
이론 및 실습, 의료법규, 시뮬레이션 실습
등

졸업 후 진로

하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자격증 간호사, 보건교육사, 기본소생
술(BLS-P)자격 등
둘, 전국 대학병원, 병원 및 의원, 보건소,
복지시설, 제약회사 등에 전문가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업분야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임상간호사, 임상전문 간호사(마취,
정신, 보건, 임상, 아동, 종양, 산업, 감염관
리, 호스피스, 응급, 가정 등), 산업장간호사,
연구 간호사, 간호/보건직 공무원, 보건진
료원, 보충심사간호사, 요양원 경력자, 산
후조리원 경력자, 대학교수, 해외임상전문
간호사(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선교간
호사 등



간호과
인터뷰

우수하고 과학적인 실습교육과 교수진

부천 지역에서 유일하게 간호전문가를 배출하는 간호과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간호 전문가의 숫자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천대학교 간호과는 지적인 성숙은 물론 내면의 성숙까지 두루 갖춘 간호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기초부터 탄탄한 교육 과정을 갖추고 있다.

잘 짜인 교육 과정을 뒷받침하는 것은 역시 체계적인 시스템이다. 이론은 물론 다양한 현장 근무 경력을 갖춘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로 이뤄진 전문 교수진은 부천대학교 간호과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우수한 실습 여건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사실 학교에서 받은 교육을 실무에서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그 간격을 점차 좁혀 나가는 것이 바로 학교 교육의 의무이며 그 방법은 실습 교육으로 가능하다. 특히 졸업 후 바로 의료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간호과 학생에게 내실 있는 실습 교육은 더없이 든든한 지원군이 다. 마치 대형 병원의 병실과 데스크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최첨단의 실습 교실과 기자재는 학생들이 현장감을 생생하게 느끼며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에 더 나아가 국내 유명 병원과의 실습 협약 체결 역시 어느 대학과 비교해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이다.

한편 사회봉사과 인문사회학 교양 과목도 부천대학교 간호과 학생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이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단단하게 다져 기술적으로 우수한 전문가가 되는 것은 물론 윤리적이고 투철한 책임감으로 사회를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는 성숙한 간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우리 주변에 간호 전문가를 양성하는 간호과는 많다. 하지만 간호학 이론과 임상실습 등 체계적이고 탄탄한 교육을 통해 간호 대상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간호인을 양성하는 곳은 드물다. 가슴과 머리가 모두 따뜻한 전문 간호인을 양성해 의료 산업의 내일을 책임질 간호과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도 찾기를 바란다.

장경환
"탄탄하게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천대학교 간호과의 자랑입니다."



황혜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간호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전문 간호인이 될 저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정윤정
"마치 카페에 온 것처럼 예쁜 실습실이 너무 좋아요. 다른 학교에 가보진 못했지만, 아마 우리 학교가 제일 좋지 않을까요? 좋은 곳에서 공부하니 그 재미가 더 쏠쏠합니다."



오유미
"공부가 힘들기는 하지만 함께 의지할 수 있는 교수님과 학우들이 있어서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친구들아! 고마워!"



최형근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간호과를 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탄탄한 비전이 있는 간호과에 진학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김유란
"취업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실력을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실력이 있다면 취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요."

"우리 학교 간호과의 가장 큰 특징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했지만 그 어떤 학과나 대학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가능성을 갖고 있죠. 그 중 하나가 바로 학교 주변으로 종합병원 등 다양한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 간호과는 훌륭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산학협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대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충실한 교육으로 내실을 다지는 것은 기본이죠. 앞으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부천대학교 간호과의 비상에 주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부천대학교 간호과 학과장
이선혜 교수





세상을 만나고
나를 만나는

탄자니아 해외 봉사 활동을 가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행을 떠난다.
여행을 통해 잃어버린 자신을 찾기도 하고
자신의 꿈을 만나기도 한다. 여기 생애 첫 해외여행에서
자신은 물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부천대학교 학우가 있다. e-비즈니스과 11학번
박선영 학우다.

아프리카 대륙 동부 인도양에 위치한 나라, 탄자니아. 지구 반대편으로 돌아가야 만날 수 있는 이곳은 거리만 먼 것이 아니다. 기후도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다. 이렇게 먼 탄자니아를 가깝게 느끼고 온 주인공은 바로 e-비즈니스과 11학번 박선영 학우다. “다른 나라를 가본 적이 없었는데, 첫 여행치고 너무 세계 다녀온 것 같아요. 탄자니아를 조금만 소개해 드리자면 한국과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후는 물론 사람들의 성격도 모두 정반대예요. 지금 탄자니아는 겨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초여름 날씨와 비슷해 선크림과 모자는 필수 아이템이죠. 그렇지만 바람만은 아주 시원하죠. 이렇게 말하니 제가 탄자니아 전문가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번 여름,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최한 ‘단기 한국대학생 해외봉사단’으로 탄자니아를 다녀왔거든요. 탄자니아에 머무른 기간은 3주 정도.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약 3개월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참 친숙한 곳이 되었습니다.”



위탄, WITH TANZANIA!

탄자니아에서 3주 동안 컴퓨터 교육을 해주기 위해 5월 5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출국 전까지 약 2개월간 준비했다는 박선영 학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던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봉사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그러나 힘들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평소 느끼지 못했던 다른 세상을 알게 되어 좋았다. 물론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깨달은 나눔의 기쁨은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위탄(WITH TANZANIA), 저희 탄자니아 봉사팀의 팀명이에요. 27명의 학생과 단장님, 인솔자님, 부인솔자님까지 총 30명으로 이루어졌죠. 저희 팀이 맡은 봉사는 IT 교육 봉사이고 부가적으로는 유·초등부 교육도 했습니다. 주 봉사를 위해서는 특히 하드웨어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에 초점을 두었죠. 하드웨어 교육은 주로 컴퓨터 분해, 조립, 청소, OS 수업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수업을 했어요. 제가 인터넷 수업을 처음 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높아 개인적으로 정말 즐거웠어요. 참, 탄자니아는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 정전이 자주 됐는데, 그때마다 대안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배우기와 아리랑 배우기를 했어요. 그 수업도 진짜 인기가 높았어요.”

생애 첫 해외여행을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한 여행으로 다녀온 그녀. 하지만 되돌아 생각해보면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 같다고 한다.

나누면서 얻고 배운다

“탄자니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서두름은 축복이 없다(Haraka haraka haina baraka)’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모든 일을 여유롭게 하는 것이 탄자니아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이든 빨리빨리 해야 하는 우리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죠. 얼마나 여유로운지 약속 시간을 여기기도 하지만 한편 부럽기도 해요. 반면 탄자니아 사람들이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에도 학구열이 정말 높은 것에 놀랐고요. 그 점에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도 열심히 하지 않잖아요.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그들을 보며 감동을 받았고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박선영 학우. 그 중 하나가 바로 배움에 대한 열정이다. 원래 취업을 목적으로 학교를 다녔지만 이제는 배운다는 그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두기 시작했다고. 내가 한 공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나눠 줄 수 있다는 것. 그 소중함에 대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단기 한국대학생 해외봉사단이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대사협) 주최로 탄자니아를 비롯해 캄보디아, 네팔, 라오스, 우간다 등 해외로 나가 교육봉사, 특화봉사(의료, IT, 재활 등), 문화 교류 등과 같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이다. 참여 방법은 대사협 홈페이지로 신청서를 다운 받아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소속 대학 사회봉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대학 교당 2~4명 정도의 학생이 최종 선발된다. 부천대학교는 2012년 단기 한국대학생 해외봉사단에 최종 2명의 학생이 선발되어 각각 네팔과 탄자니아로 해외 봉사를 다녀왔다.



이다예 동문(경영학과, '06)

우리투자금융

강북지역본부장 보좌역

내 열정이 만드는 꿈, 내 꿈을 이끄는 학교

높아지는 청년실업을 따라 고군분투하는 청춘의 고민 역시 커져만 간다. 하지만 이에 머뭇거리지 않고 자기 노력을 다하는 한편, 학교의 강점을 심분 활용해 성공적인 취업의 길을 개척한 동문이 있으니, 그 지혜와 열정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본다.



학교, 내 꿈을 함께 이끄는 든든한 동반자

이다예 동문(경영학과, '06)은 현재 우리투자금융 강북지역본부에서 본부장 보좌역을 담당하고 있다. 본부장을 도와 강북 지역의 18개 지점의 인력을 관리하며, 같은 자리에서 5년째 흔들림 없이 역량을 키워나가는 중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 취업, 어떤 직종보다 발을 들이기 힘들다는 대형 증권사에 취업한 그녀는 취업 준비의 일 순위로 먼저 '꿈을 가질 것'을 당부한다.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하고 찾아냈을 때, 열정은 성장하고 그 열정을 동력으로 사회에 당당히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것.

"꼭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가 아니더라도 자각증을 획득하는 것, 무언가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처럼 작은 부분들도 모두 꿈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한 걸음씩 작은 꿈을 성취하며 큰 꿈을 이뤄가는 겁니다. 어학공부 등 부수적인 공부도 병행해야죠. 물론, 모든 과정에서 노력은 필수적이겠죠." 꿈을 가졌다면 이제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할 터. 개인적인 학업 외에 취업지원시스템을 활용한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특히, 학교 내 '취업정보센터'는 취업문을 열어준 은인이나 다름없었다고. 학교의 다양한 학생지원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지혜로운 노력의 일환이겠다.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저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선생님의 추천으로 현재 회사에 지원했고, 원하는 곳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됐죠. 지금도 각 기업에서 추천 서류가 꾸준히 들어온다고 합니다. 학교도 센터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니, 후배들이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찾아 적극 활용하길 바랍니다."

이 외에 개인 공부를 위해 도서관, 어학실 등 다양한 학습 공간을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더군다나 학교가 작기에 동선이 짧아 더 집중적으로 학교를 활용할 수 있었다고. 학교의 핸디캡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강점으로 활용한 것이다.

믿음과 소통의 관계 속에 열정을 키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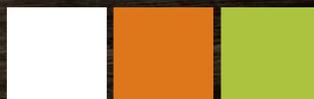
취업정보센터가 취업의 물꼬를 열어준다면, 열정만점 교수진은 학생들이 꿈을 찾도록 선구자의 노력을 기울인다. 강의 실 안팎에서 학생들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교수진의 교육열 덕에 대학 시절 내내 큰 힘을 얻었음을 이다예 동문이 자랑한다.

"2년제라고 교수님이 못 가르치시는 게 아니거든요. 교수님 개개인의 능력도 뛰어나지만, 학생 한 명 한 명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2학년 2학기, 취업을 하게 되어 경제학 수업에 계속 들어가지 못했는데, 교수님께서 '다예는 공부로 나가면 더 잘 될 텐데 왜 벌써 취업을 했지'라는 말을 전했죠. 이처럼 스승으로서 제자의 성장과 발전 방향에 집중하고 정확히 판단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학생에게 큰 감동과 힘을 전하는 것이죠. 부천대 교수님들의 진심 어린 지도에 학생들은 더욱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훌륭한 교수진과의 소통은 좋은 멘토-멘티의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멘토를 만들고 멘토와의 접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교감할 때, 꿈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지는 것. 이에 그녀는 현재 사회에서 만난 또 한 명의 멘토를 통해 더욱 멋진 미래를 일구고 있음을 밝힌다.

"회사에 고졸 출신으로 센터장까지 오른 여자 상사님이 계십니다. 학벌 중심 사회에서 밑바닥부터 본인 힘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이 분을 저의 롤모델로 삼고 나를 닮아 갑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에 멘토가 있다는 건 참 중요해요. 또, 나만의 멘토를 찾았다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듣고 볼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튼튼히 커리어를 쌓아 사회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회인이 되고 싶다는 이다예 동문. "훗날 스카웃 제의가 들어올 때까지 나만의 실력을 갖춰나가겠다"는 그녀는 지금도 한번의 성공 미래를 기다리고 있다. 사회의 문턱에서 있는 우리, 앞으로 그 지혜롭고 열정적인 발자취를 따라 걸어볼 일이다.





부천사,
세상을 품다

하와이 해외 연수 프로그램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전공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것이 전부 아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자세, 균형적인 시각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어학 능력 등이 필요하다.
여기 '부천대학교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배우고 온
부천인들이 있다.

이철구
(관광경영과 08학번,
총학생회장)

최혁준
(토목과 07학번,
학생회연합회장)

이순규
(비서과 11학번,
비서과학생회장)

더위가 막 시작되었던 지난 6월,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45명의 부천인들이 하와이로 향했다. 바로 부천대학교와 하와이 카피올라니 커뮤니티 컬리지(KAPI'OLANI Community College)와의 상호 교류협력 협약 체결의 일환인 '2012학년도 부천대학교 하계 하와이 어학연수'가 있었던 것.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온 몸으로 하와이 문화는 물론 어학 공부라는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고 돌아온 45명의 부천인들을 만나보았다.

하와이에서 만난 소중한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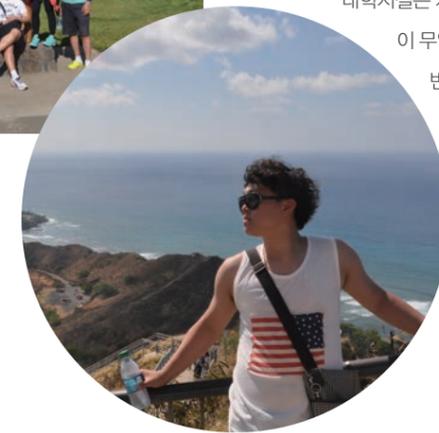
한 달 동안 다른 나라의 어학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처음 만나는 문화와 친숙해지는 것만으로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몰랐던 타 문화를 이해하는 마음은 갖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하와이 어학연수를 다녀온 부천인들도 완벽하게 외국어를 마스터하지는 못했지만, 공부할 수 있는 계기와 세계를 넓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토목과 최혁준 학우는 당장의 실력 향상보다는 더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 떠날 때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생각이 앞섰지만, 막상 한국에서의 수업보다도 더 빠른 하와이 연수 기간 동안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앞으로 자신의 꿈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을지 생각하고 계획해 보는 기회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어학연수를 다녀온 45명의 생각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관광경영과 이철구 학우는 하와이라는 의미가 남다른게 다가왔다.



"아마 저뿐 아니라 관광경영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하와이에 꼭 한번쯤은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앞선 관광 문화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어학은 물론 전공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순규 학우는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들과 같은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어학연수를 다녀온 소감을 밝혔다. "언제나 여유를 갖고 온화한 미소를 보내주던 하와이 현지인들. 그들의 아름다운 미소를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또한 문화 교류 시간에 배운 하와이 전통 춤 덕분에 앞으로 제 특기가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꾸다

대학시절은 자신의 꿈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기다. 하지만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목표를 정한다는 것도 그리 쉽지 않다. 성공처럼 번뜩이듯 자신의 꿈을 세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많은 경험을 통해 진정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보다 넓은 세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더욱 단단히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 글로벌 리더를 향한 꿈으로 힘차게 첫걸음을 시작한 45명의 부천인처럼 말이다.



하와이 카피올라니 커뮤니티 컬리지

부천대학교와 상호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하와이 카피올라니 커뮤니티 컬리지(KAPI'OLANI Community College)는 하와이 주립대학에 소속된 캠퍼스로 1~2학년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약 10,0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또한 카피올라니 대학은 전문실무 영역 중심으로 하와이 특유의 자연친화적인 분위기가 특징이다.

부천대학교 해외 연수 프로그램

부천대학교는 상호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해외대학과 함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2012학년도 부천대학교 하계 하와이 어학연수' 역시 그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부천대학교 간부 중 45명이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하와이 카피올라니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왔다.



2010년 10월14일 이명박대통령은 부천대학교를 방문하여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학생들과 취업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졸업생 모두가 취업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취업정보센터의 2012년 하반기 사업들

부천대학교의 최선두에서 기업이 원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취업정보센터가 2012년 하반기 시작과 함께 힘차게 엔진을 켜고 있다. 개별 프로그램을 통합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 및 직무 능력 강화 프로그램인 BUCA-JUMP를 비롯해 부천대학교가 준비하는 야심찬 취업 관련 사업들을 소개한다.

취업을 위한 원스톱 토탈 솔루션 BUCA-JUMP

부천대학교에서는 2012년 들어 취업 및 직무 능력 강화 프로그램인 BUCA-JUMP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해 스스로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BUCA-JUMP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완벽하게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부천대학교만의 독보적이며 대대적인 프로그램이다. 기존 취업 관련 프로그램이 스킬 강화, 취업 캠프, 박람회 등 일회적이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것에 반해, 매우 공격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아닐 수 없다.

2학년, 3학년 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BUCA-JUMP는 학과별로 1일 캠프를 개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캠프 당일 스펙 및 포트폴리오 파악을 위한 진단지 작성, 개별 상담 등을 통해 학생 개인의 취업 준비 상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의 상태를 4개 그룹으로 구분해 개별 사후 관리가 이뤄지는 것이다.

예컨대 바로 취업이 가능한 A 그룹은 구직 활동 방법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기본 교육 후 취업이 가능한 B 그룹의 경우 서류와 면접 등 취업 역량 교육 후 취업을 앞선하게 된다. 반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C 그룹은 개별 컨설팅 교육을 통해 원하는 진로를 결정하는 관리부터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D 그룹의 경우 개인 상담을 통한 마인드 교육에서부터 취업 관련 지원이 시작되는 것이다.



특히 1일 캠프에서부터 구직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까지 각 학과별로 선정한 국내 유수의 리쿠르트 전문 업체가 진행하므로 보다 전문적으로 능력 강화가 이뤄지게 된다.

현재 BUCA-JUMP는 총 21개 학과 1,400명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상태이며, 산업 디자인과, 문화상품디자인과, 섬유비즈니스과, 비서과 등 4개 학과가 이미 1일 캠프를 마치고 개별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4개 학과의 1일 캠프 만족도가 공히 90% 이상 나왔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전체 1,400명 역시 100~200명 정도의 인원으로 취업 관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타 학교와 비교되는 대대적이고 획기적인 규모가 아닐 수 없다.

“올해 부천대학교의 취업률은 66.4%로 타 학교와 비교할 때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더 이상 취업정보센터를 찾아오는 학생만을 지원하기보다는 직접 학생들을 찾아가서 지원해주고 관리해주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몇 년간의 취업 데이터를 자체 분석하고 학생들의 개별 설문조사를

강화해 취업률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BUCA-JUMP 프로그램을 완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업체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BUCA-JUMP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알차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학년은 자기 계발에! 리더십 캠프와 멘토링 프로그램

부천대학교의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특징으로는 고학년 못지않게 1학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학생들이 입학 때부터 곧바로 자기 계발과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1학기 때에는 ‘스펙 쌓기 전략’, ‘적성 계발’ 등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게릴라 특강과 함께, 시간 활용과 인간관계, 창의력과 커뮤니케이션 등을 점검하고 고민해 보는 리더십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충분한 고민의 시간을 가진 후에는 2학기 들어 비전 설계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각 학과별로 추천한 외부 산업계 전문가와 1학년 학생들이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해 학생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비전을 설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멘토 1명당 3명의 멘티들은 3개월 동안 5회의 만남을 통해 적성을 점검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2학기에는 1학년을 대상으로 모의입사 콘테스트가 운영되기도 하는데,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이력서를 제출하면 그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면접을 경험토록 하고 장학금까지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의입사 콘테스트는 한 달 동안 무려 600명이 지원하는 등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부천대학교에서는 취업정보센터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에 많이 참여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SELP 마일리지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2학년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행사구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안내	저학년		고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게릴라 특강	성공적인 대학생활에 필요한 실속 정보 제공 - SELP 활용법, 장학금, 휴/복학 안내 등 교내 서비스 안내 및 Q&A - 취업 스펙 쌓기 전략, 구직사이트 활용법 - 미와 건강 (메이크업, 금연 등)				
학과별 취업특강	학과 특성에 맞는 서류 작성 및 면접 교육 디자인계열 포트폴리오 작성법				
학과별 진로특강	진로설정 및 직무교육 학과 관련분야 전문가 특강				
모의입사콘테스트	입사전형의 전반적인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취업캠프	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자기발전의 기회 제공				
리더십캠프	개인리더십 강화프로그램 (비전 설정, 창의력, 조직력, 문제해결 능력, 인간관계 형성)				
비전설계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외부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진로를 설정하는 프로그램				
대기업 특화반	삼성, LG 등 대기업을 목표로 이력서, 면접 등 필요한 역량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기회 제공				
취업동아리	희망 기업/직무별 소그룹 동아리 운영 및 지원 - 모임 장소 제공, 간식 제공 - 사전 신청 시, 컨설턴트 지도 가능				
SELP 마일리지 장학금	SELP에서 취업정보센터 각종행사(진로 및 적응진단, 진로 및 취업특강, 취업캠프, 리더십캠프, 모의입사 콘테스트 등) 활동을 통하여 본인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 2011학년도 총 800명 3억원 지급				
수강료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 2011학년도 총 850명 1억3천만원 지원				
대외공모전지원	2011학년도 총 500명 5천만원 지원				
해외현장실습	4개월 동안 해외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공관련 국제실무 능력 겸비				

※ 모든 프로그램은 SELP(http://selp.bc.ac.kr)에서 공지되고 참여신청도 가능합니다.

활용도 만점!
세련미 만점!

새롭게 변신한 캠퍼스에서



운동장 체육 시설 환경 개선

이번 환경 개선 사업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운동장의 변신이다. 특히 운동장의면적은 4,487㎡로 축구 전용 구장을 기본으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편의시설까지 마련되어 활용도가 높아졌다. 앞으로 인조잔디축구장은 학생들의 체력단련과 여가를 위해 다양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개선 사업으로
확 달라진 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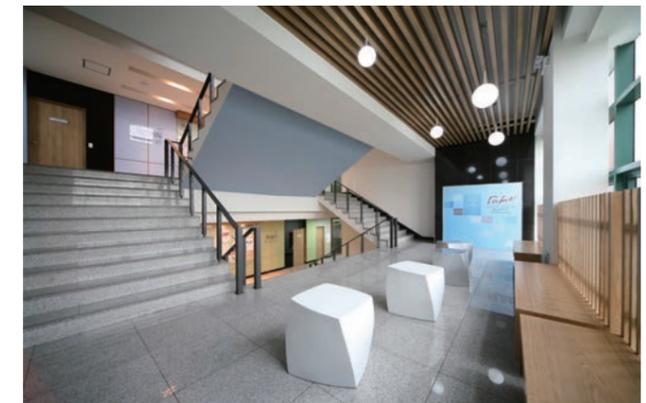
2012년 2학기를 맞아 부천대학교가 또 한 번 달라졌다. 단계별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환경 개선에 힘쓴 결과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밀레니엄관 오픈 스튜디오 리모델링을 비롯해 한길관 복도와 계단 및 세미나실 복도 리모델링, 그리고 운동장 체육 시설 개선까지, 활용도와 미적 감각까지 갖춘 달라진 모습을 소개한다.

밀레니엄관 오픈 스튜디오 리모델링

밀레니엄관 B1층 353.3㎡이 학생들을 위한 10개의 오픈 스튜디오 리움과 1개의 공개 강의실, 그리고 쾌적한 휴게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로써 학생들은 언제든지 신청을 통해 쾌적하고 세련미가 돋보이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그룹 단위의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오픈 스튜디오 리움은 10여 명 정도가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테이블의 다양한 조합과 배치가 가능해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스튜디오 리움의 일부는 두 개의 리움 하나가 하나로 연결되는 가변형 공간으로 구성해 20~30명의 대규모 인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개 강의실은 30명 이상이 강의 및 스튜디오가 가능하도록 꾸몄다.

한길관 복도 및 계단, 세미나실 복도 리모델링

한길관 복도와 계단 및 세미나관 복도가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리모델링되었다. 먼저 복도는 전체적으로 강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개방적으로 디자인되었다. 복도 수납장은 공간을 최대한으로 두되 디자인적으로 통일성을 부여했다. 한편 계단과 세미나실 복도는 학생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해 미적 완성도에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부천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프랑스&이태리 연수

부천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교수와 학생 27명은 지난 7월 1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프랑스, 이태리의 음식문화체험 연수를 가졌다. 이번 연수를 통해 호텔외식조리과 학생들은 유럽의 음식 문화 체험을 통한 전공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또한 현지 교육 기관 3곳에서 요리와 와인 소믈리에, 커피 바리스타 학습 후 수료증을 받고, 보르도 지역의 대표 와인너리 CHATEAU SMITH-HAVY-LAFITTE를 방문해 와인관련 현장 교육을 받았다. 현지 교육기관 중 Le Cordonbleu는 1895년 설립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프랑스 최고의 요리 교육 기관으로 호텔외식조리과 학생은 7월 3일 Le Cordonbleu의 교육시설을 참관했으며 Chef Marc VACA로부터 Mouseline d'Aubergine, Sauce d'Huile d'Olive Citronnee 등 프랑스 전통 코스 요리를 배웠다. 또한 CAFA에서는 와인 소믈리에 교육을 받은 후 CAFA 총지배인에게 직접 수료증을 받았다. CAFA는 세계적인 와인 산지 보르도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로 프랑스 소믈리에 교육협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호텔 및 레스토랑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LAVAZZA에서는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다. LAVAZZA는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커피 바리스타 트레이닝센터로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스쿨이다.



2012 교직원 직무향상 하계 연수

교수학습지원센터는 2012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1일 교내에서 교직원 직무향상 하계연수를 가졌다. 이날 오전에는 기획조정처장의 '대학 발전을 위한 비전과 소통'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오후에는 교수를 대상으로 '대학생의 동기 유발을 위한 교수 전략'(서울여자대학교 박승호 교수), '학교 기업'(세무회계과 서정록 교수), '개인경력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취업 및 직무역량강화 방안'(취업정보센터 박영훈 교수),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전자과 김덕영 교수), '발표력 향상을 위한 CPR 적용 3C 교수학습모형의 개발 및 효과 분석'(식품영양과 변기원 교수) 등의 발표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운영전략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중국심양국제학교 재학생 방문

부천대학교는 지난 8월 22일 중국심양국제학교 재학생 10여 명과 교직원들을 초대해 대학 소개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중국심양국제학교 한국어 과정 학생들의 한국 방문기간 중 마지막 날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학 시설과 학과 그리고 기숙사를 비롯한 각종 편의 시설 등을 소개했다. 중국심양국제학교 일행은 정심관과 평생교육관의 기숙사, 취업정보센터, 3D영상그래픽전공 등을 둘러보고, 학생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견학을 마쳤다. 심양시 외국어학교는 요동성 유일의 외국어 특화학교로 심양시 교육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한국어의 7개 외국어를 교육하며 36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시흥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개소

시흥시 능곡동 교육장에서 지난 8월 8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부천대학교에서는 미취학 아동 등 어린이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의 급식관리 안전 지원을 위해 시흥시로부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을 위탁 받았다. 이에 어린이 급식 안전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담고 향후 급식 지원센터가 어린이들의 안전 급식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흥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앞으로 시흥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조 잔디축구장 개장식

부천대학교는 지난 9월 4일 오전 12시에 총장, 보직교수,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인조 잔디 축구장의 개장식과 시축행사를 가졌다. 부천대학교 한방교 총장은 "학생 및 교직원들이 잔디 축구장을 통해 심신의 단련 및 정신 수양을 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것이며, 그로 인해 학교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인조잔디축구장은 지난 하계 방학기간 중 학생들의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면적은 4,487.75㎡이다. 앞으로 잔디 축구장은 교직원, 학생동아리 및 교양체육을 비롯해 한걸체육대회와 가요제 등 다양한 행사에 활용될 계획이다.



하와이주립대학(KCC) 총장 부천대학교 내방

하와이 주립대학 KCC의 레온 리처드(Leon Richards) 총장이 지난 9월 11일 오전 11시 부천대학교에 방문했다. 대학 정문에서 지난 여름 하와이 연수를 다녀온 학생들로부터 환영인사를 받은 리처드 총장 일행은 한방교 부천대학교 총장과 환담 후 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환영식에서 리처드 총장은 부천대의 규모와 최근의 취업 성과에 대해 매우 놀랐으며 학교의 위상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환영해준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이후 한방교 총장과 리처드 총장 그리고 대학 관계자들은 간호과와 호텔외식조리과를 비롯해 교내의 여러 시설들을 둘러보았다. 부천대학교는 여학연수를 위해 매년 학생들을 하와이로 파견하였으며, KCC와는 지난 7월 교류협력 체결을 맺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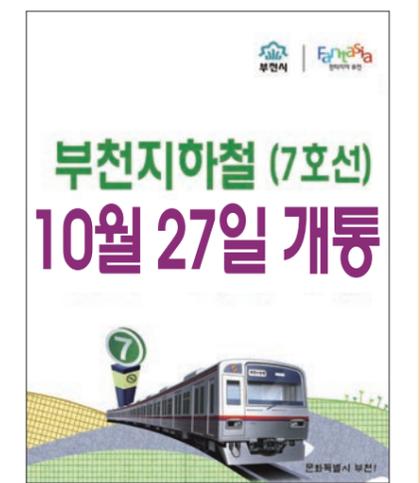


전국 세무, 기업회계 경진대회에서 대상과 은상을 수상

부천대학교 세무회계과는 지난 8월 10일 개최된 전국 세무회계·기업회계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세무회계 부문에서 단체부문 대상, 기업회계 부문에서 단체부문 은상을 수상 했다. 세무회계과 2학년 학생들이 김지현, 김목경, 김겨레, 나현서, 강이랑 팀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그리고 법인세법에 관한 능력을 겨루는 세무회계 단체부문에서 대회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수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 부문에서도 팀원 모두가 특별상을 수상하였으며, 세무회계과 1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권유한, 이정우, 우승완, 이소영, 김혜진 팀은 재무회계와 원가회계의 능력을 겨루는 기업회계 단체부문에서 은상과 개인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실력을 뽐내었다. 이들 외에도 경진대회에 참가한 세무회계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별상이나 장려상을 수상하여 부천대학교 세무회계과의 실력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국 세무회계·기업회계 경진대회는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등이 후원하고, 한국지식경영교육협회(한국세무회계교육연구회)가 주최하는 대회이다.

10월 27일 7호선 신중동역 개통! 부천대학교 이제 7호선으로 통학하세요

오는 10월 27일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으로 신중동역이 개통함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이 더욱 편리해졌다. 이전까지 서울 강남권의 학생들이 부천대로 통학하기 위해서는 강남역에서 버스를 타거나 2호선 노선을 통해 신도림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해야 했다. 하지만 7호선 연장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강남권 학생들도 신중동역까지 4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고, 신중동역에서 대중교통으로 환승해 부천대로 통학할 경우 10분 안에 캠퍼스에 도착할 수 있어 총 1시간 내 통학이 가능해졌다. 신중동역은 부천의 강남역, 부천의 홍대 등으로 일컬어지는 부천시 교통의 중심지이다. 부천대학교 학생들의 발이 될 신중동역 개통으로 부천대학교는 취업률과 교육 서비스 외에도 교통 환경에서도 수도권 최고의 교육중심 대학이 될 예정이다. 한편 7호선 연장 구간은 지난 3월부터 시운전이 개시되어 9월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2013학년도

수시2차

신입생 모집요강

1. 모집학과 및 전형별 모집인원

계열	학과	수업 연한	입학 정원	주야	정원내 모집인원			정원의외 모집인원	
					인문계 고교	전문계 고교 등	기타 독자기준	전문대학· 대학졸업자	농·어촌
인 문 계	건축과	2년	120	주간	54	6		12	4
	실내건축과	3년	108	주간	35	2		10	3
	토목과	2년	80	주간	25	4		8	2
	디지털콘텐츠과	2년	80	주간	24	4		8	2
	컴퓨터소프트웨어과	3년	80	주간	25	4		8	2
	전자과	2년	160	주간	55	9		16	6
	정보통신과	2년	160	주간	52	2		16	6
	컴퓨터제어과	2년	120	주간	48			12	4
	e-비즈니스과	2년	130	주간	46	7		13	4
	섬유의류비즈니스과	2년	80	주간	29	3		8	2
예 · 체 능	산업디자인과	3년	60	주간	20			6	1
	패션디자인과	2년	80	주간	34	2		8	2
	만화&2D영상그래픽전공	2년	40	주간	11	2		4	1
	3D영상그래픽전공	2년	40	주간	16	1		4	1
	광고디자인전공	2년	40	주간	10	2		4	1
	주얼리디자인전공	2년	40	주간	10	2		4	1
	실용사진전공	2년	40	주간	8	2		4	1
	생활스포츠과	2년	80	주간	16		8	8	2
자 연 과 학	식품영양과	2년	80	주간	26	2		8	2
	호텔외식조리과	2년	80	주간	21	1		8	2
	간호과	3년	30	주간	6			5	2
인 문 사 회	경영과	2년	120	주간	32	3		12	4
	관광경영과	2년	120	주간	32	3		12	4
	부동산금융정보과	2년	80	주간	30	10		8	2
	비서과	2년	120	주간	38	8		12	4
	세무회계과	2년	120	주간	34	8		12	4
	행정과	2년	40	주간	10	2		4	1
	유아교육과	3년	104	주간	32	2		8	
			24	야간	8			1	
	사회복지과	2년	80	주간	26(면접)	5(면접)		8	2
	영유아보육과	2년	40	주간	12	2		4	1
		40	야간	14			4	1	
항공서비스과	2년	80	주간	22(면접)	2(면접)		8(면접)	2(면접)	
합계		2,696		861	100	8	267	76	

주1) 고교 전공과 관계없이 본 대학 전체학과에 지원할 수 있음(교차 지원 가능) 주2) 수시모집에서 미 충원된 인원은 정시모집에서 모집함
주3) 신설학과 : 항공서비스과 주4) 학과명 변경 : 섬유비즈니스과 → 섬유리뷰비즈니스과

2. 전형일정

구분	일정	장소	비고
모집요강 게시	2012.9.26(수) 부터	본 대학 홈페이지	별도의 원서교부 없음 (모집요강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함)
원서 접수	인터넷접수	2012.10.29(월) ~ 11.20(화) 24시까지	www.uwayapply.com www.jinhakapply.com
	교내 창구 접수	2012.11.14(수) ~ 11.15(목) 17시까지	본 대학 밀레니엄관 1층 교무처
제출서류 송부	2012.10.29(월) ~ 11.22(목) 9시부터 17시까지 도착	일반 : 등기우편 송부, 또는 방문 제출 (우 420-73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56번길 25(삼곡동) 부천대학교 교무처)	
면 접	면접시간 예약	2012. 11. 22(목) ~ 11.23(금) 15시까지	면접시간을 홈페이지에서 예약
	면접시간 확인	2012.11.24(토)	개인별 면접 시간, 장소 홈페이지 공지 확인
	면접일	2012.11.27(화)	오전 9:00 ~
합격자 발표	2012.12.7(금)	본 대학 홈페이지 및 지정 ARS	
합격통지서 및 등록확인예치금 고지서 출력	2012.12.7(금) ~ 12.14(금)	본 대학 홈페이지	
등록예치금 납부기간	2012.12.12(수) ~ 12.14(금) 은행마감시간까지	하나은행 전국지점 및 가상계좌 이용	
총원작업	2012.12.15(토) ~ 12.20(목)		
총원 합격자 등록	2012.12.17(월) ~ 12.20(목) 은행마감시간까지	하나은행 전국지점 및 가상계좌 이용	

주1) 면접 전형지원자가 많을 경우 면접일자가 추가될 수 있음 주2) 잔여등록금 납부는 6.합격자발표 및 등록 내용 중 2) 잔여등록금 납부 안내 참조
주3) 검정고시출신자, 외국의 고교출신자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수시모집에 지원 불가능하며 정시에 수능을 필한 후 일반전형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미래화 국제화를 선도하는 친환경 스마트 캠퍼스!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조 성

부천대학교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일원에 186,646㎡ 규모로 제2캠퍼스를 조성한다. 제2캠퍼스는 캠퍼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구적 풍토를 확립해 국제적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부천시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미래적이며 진취적인 캠퍼스가 될 것이다. 제2캠퍼스는 2017년과 2022년, 그리고 2027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완공되며, 스마트 첨단 캠퍼스, 친환경 캠퍼스, 지역 연계형 캠퍼스라는 3대 건립 목표 아래 조성될 계획이다.



Perfect!

사람다운 사람, 퍼펙트한 인재
부천대학교

창의와 기술에 인성을 더한 사람다운 사람!

2013학년도 수시2차 모집

- 원서접수 : 2012. 10. 29(월) ~ 2012. 11. 20(화)
- 입학문의 : 교무처 032-610-0700

2013학년도 정시 모집

- 원서접수 : 2012. 12. 24(월) ~ 2013. 1. 8(화)
- 입학문의 : 교무처 032-610-0700

산업체 위탁생/4년제 학사학위과정 모집

- 입학문의 : 평생교육처 032-610-0591~7

www.bc.ac.kr



사람다운 사람
부천대학교



부천대학교 설립자
夢堂 한항길 선생
3.1운동에 참여한 공훈으로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1897~1979)

